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등
 - 배포일 : 2017년 2월 9일(목)
 - 담당자 : 공동대변인 남정수(010-6878-3064), 박진(010-6268-0136), 안진걸(010-2279-4251)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

기자간담회

○ 진행 순서

사회 : 남정수 공동대변인

1. 현안 논평

- 1) 현재 탄핵심판 일정 지연 관련 / 안진걸 상임운영위원
- 2) 특검 연장 촉구 및 박근혜 뇌물죄 적용, 대면조사, 이재용 영장제청구 등 특검 수사 관련 / 김태연 상임운영위원
- 3) 새누리당과 박근혜 범죄 비호·관제데모 세력 행태 관련 / 박진 공동상황실장

2. 2월 11일(토)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안내 / 박병우 공동상황실장

- 1) 2/11(토)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안내(집회프로그램, 행진 코스, 퍼포먼스 설명)
- 2) 사전대회, 지역촛불 집회 현황
[별첨]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 만드는 ‘1박2일’ 대행진(2.10~2.11일)
/ 김수억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장
- 3) 2.18일(토)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 현안 논평

1) 현재 탄핵심판 일정 지연 관련

범죄자의 꼼수를 한 치도 허용해선 안 된다 현재는 신속·단호하게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가? 박근혜는 탄핵이 기각되면 언론과 검찰을 손 볼 것이라며 독을 내뿜으며 시간끌기로 판을 뒤집으려 한다. 눈물을 쥐어짜내고, 거짓 사과를 내뱉던 박근혜는 민심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유년 첫 촛불에서 “2월에는 탄핵하라”를 외쳤던 촛불들의 분노는 비할 데 없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측은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고 이들이 불출석하면 계속해서 변론 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최종 변론에 박근혜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중대 결심 운운하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 협박이 먹혀들지 않자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78퍼센트인데도, 측근들의 입에서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박근혜는 자신은 무고하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고 3월 13일이면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하게 된다. 2월 28일이면 특검의 1차 활동 기한이 끝난다는 점도 박근혜는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측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만을 노릴 때 엄격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탄핵이라는 중대하고 신속함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얄은 술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와는 털끝만큼도 상관없는 범죄자 세력이 공정성 운운하는 것에 대해 현재가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천만 촛불 민심에 의해 탄핵된 지 오래인 박근혜가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늘어놓고, 공범자 이재용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박근혜와 함께 물러났어야 할 황교안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다.

지난 4년 동안 부패와 비리로 이 사회를 주물러 온 자들은 이제 거짓과 몰염치로 위기에서 탈출하려 한다. 박근혜는 태연하게 탄핵 반대 관세 데모가 퇴진 촛불의 2배라는 거짓말을 내뱉으며 지지자들을 규합하면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촛불들은 물러서지 않고 거짓과 어둠에 맞서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모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박근혜의 꼼수를 용인하지 말고 지금 당장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촛불의 명령이다! 현재는 신속히 탄핵 인용하라!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내려와 감옥으로 가라!

2) 특검 연장 촉구 및 박근혜 뇌물죄 적용, 대면조사, 이재용 영장재청구 등 특검 수사 관련

특검 시한연장은 당연하다

- 청와대 압수수색, 고강도 대면조사, 이재용 영장재청구로 뇌물죄 밝혀내야

박근혜와 범죄자 비호세력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를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천만 촛불 100일 항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촛불을 모함하고 특검을 음해세력으로 몰고 있다. 국민 힘으로 만들어낸 탄핵을 기각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교안과 새누리당은 범죄 규명을 방해하며 관제데모와 가짜뉴스를 동원해 정치적 재기를 꾀하고 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 그리고 그 비호세력이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과 비호세력이 준동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박근혜 범죄를 낱알이 드러내는 일이다. 국민들이 특검에 남다른 관심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렴치와 불법, 비리를 통해 가진 자들의 천국을 만들었던 박근혜 일당을 엄중히 단죄해서 다시는 추악한 권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특검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범죄를 제대로 밝혀내기도 전에 특검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졌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박근혜 범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게이트의 포문을 열어젖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즉 재벌과의 뇌물거래다.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었지만 뇌물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야 할 부분이 산적하다. 그러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벌에 대한 수사는 힘을 잃었으며 KD 코퍼레이션 등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그간 아예 언급된 적도 없다.

뇌물거래로 점철된 더러운 정권과 재벌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범죄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처음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바로 그 열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황교안에 의해 불법적으로 거부당했으며 바로 그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근혜 대면조사 역시 범죄자 박근혜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농락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회성, 비공개,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라는 조건도 어이가 없지만 그조차 ‘특검이 일정을 유출했다’며 거부했다. 적반하장에 무법천지 아닌가.

광장을 밝힌 촛불이 있었기에 오늘의 특검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에 특검 시한은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진실을 은폐하는 적극적인 범죄가담행위다. 한편 특검은 국민의 열망만 바라보고 범죄자들을 엄정수사해야 한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 강도 높은 박근혜 대면조사를 통해 뇌물거래를 비롯한 범죄행위를 낱알이 드러내 처벌해야 한다.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촛불은 범죄자들의 준동에 맞서 촛불의 일을 할 것이다.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3) 새누리당과 박근혜 범죄 비호·관제데모 세력 행태 관련

새누리당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기대할 수도 없는가

보수의 품격따위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 뇌물과 공작정치와 생명파괴로 일관한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을 한 이들에게 ‘보수’ 라는 점잖은 말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노릇도 기대하지 않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대통령의 명령대로 최순실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힘을 써온 이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였다. 새누리당 의원들 이야기이다.

청와대가 전경련에 자칭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각 단체 집회 활동량에 따라 지원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단체들은 소위 ‘태극기 집회’ 라는 범죄옹호 집회를 주최하는 이들이다. 특검을 통해 뇌물과 공작정치의 일단이 드러났는데, 이 집회에 모인 이들은 여전히 ‘박근혜는 죄가 없다’ 고 외친다. 뇌물죄를 부정하여 형량을 낮추고, 탄핵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려는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기획이다. 이는 자칭 보수단체에 대한 청와대의 관리가 지금도 치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과 가짜뉴스를 동원한 선동에 휩쓸린 이 집회는 점차 폭력적이 되고, 곳곳에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이인제,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이 관제데모에 몰려갔다.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령을 선포하라’ 고 외치고, 아무에게나 종북낙인을 찍어대는 이들을 ‘애국자’ 라 치켜세웠다. 탄핵심판이 길어지고 황교안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 이것을 박근혜와 공범자들에 대한 면죄부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나라가 엉망이 되든 말든 범죄옹호세력을 동원해 살아남으려는 행태가 참으로 역겹다. 탄핵이 하루 빨리 결정되고, 특검을 연장하여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습성이 몸에 배인 이들이라 반성할 줄 모르며,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권력만을 탐해왔던 이들이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성민 전 더블루K대표가 재판정에서 최순실씨를 향해 했다던 말,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제데모에 참여한 국정농단의 공범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2. 2월 11일(토)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기조와 개요

※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초점

- 박근혜 세력의 준동에 맞선 촛불의 맞대응. 1월 중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촛불의 대규모 맞대응.
- 현재 탄핵 지연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특검 연장과 박근혜 구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장
- 2월을 촛불의 비상한 시국으로 선포하고 2월 18일 대규모 촛불과 2월 25일 전국집중 촛불을 호소하고 결의를 모으는 장

1. 기조

- 박근혜 세력의 준동에 맞서 박근혜 즉각 퇴진과 2월 탄핵, 특검 연장과 구속을 요구하는 맞대응
- 촛불의 비상한 2월을 선포하고 18일 대규모 집결과 25일 전국 집중까지 지속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결의하는 장
- 박근혜없는 박근혜 체제의 수장 황교안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장
-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총수와 공범자 구속 요구
- 박근혜표 정책 폐기와 적폐청산을 요구
- 조기대선에 경도돼 있는 야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 촛불의 개혁요구 제기와 실현 촉구

2. 슬로건과 제목

물러설 수 없다! 2월 탄핵! 특검 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을 위한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3. 개요

- 4시 30분-6시 물러나쇼
- 6시-7시 30분 본집회
- 7시 30분-9시 행진
- 9시 전체 마무리

4. 프로그램

- (1) 물러나쇼(부제: 달하 노피곰 도다샤): 4시 30분-6시
- 사회: 서정민갑
- 대학생노래패연합 / 발언1(선거법개정)
- 하이미스터메모리 / 발언2(9호선 고용승계 요구 여성노동자)
- 강허달림 / 발언3(여수참사 10주기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
- 갤럭시익스프레스

(2) 본집회 : 6시-7시 30분

사회: 최영준(공동상황실장)

기조영상

발언: 현재 신속 탄핵 관련 발언, 특검연장과 구속 촉구 발언, 시민자유발언 2명, MBC 사장임명 관련 이호찬 기자, 개성공단 폐쇄 1년 관련 발언(영상 포함)

공연: 뜨거운감자, 레게스카울스타즈(노선택과 서울소스 & 루드페이퍼 & 킹스턴루디스카)

전체 퍼포먼스-촛불파도, 소등퍼포먼스(라이트별룬 퇴진 보름달 띄우고 퇴진 소원 빌기)

(3) 행진: 7시 30분-9시

1차 : 청와대 포위(박근혜 즉각 퇴진과 황교안 퇴진 요구) : 8시 전체 공동 행동

2차 : 현재 2월 탄핵 촉구: 현재로 행진해서 공동행동과 마무리

9시 : 전체 마무리

행진 안내

1. 행진 시간 : 19:30~21:20 (1시간 50분 행진)

2. 개요

- 본 대회 이후 연이어 두 차례 행진을 진행함. 1차 행진은 ‘청와대 포위’ 행진(박근혜 즉각 퇴진·구속, 황교안 사퇴), 2차 행진은 ‘헌법재판소 2월 탄핵 촉구’ 행진(박근혜 신속 탄핵 촉구).

3. 행진 코스

1) 1차 ‘청와대 포위’ 행진 (세 방향) : 전체 대열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 청와대 100미터 앞① : 광화문광장 → 내자로터리 → 청운동 주민센터(신교동로터리) → 효자치안센터(자하문로)

- 청와대 100미터 앞② : 광화문광장 → 정부종합청사 사거리 → 자하문로 16길 21(효자로)

- 청와대 100미터 앞③ : 광화문광장 → 동십자각 → 세움아트스페이스 → 팔판길16길/126맨션(삼청로)

2) 2차 ‘헌법재판소 2월 탄핵 촉구’ 행진(두 방향) : 전체 대열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

-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① : 내자로터리 → 동십자각 → 안국동사거리 → 안국역 1번 출구

-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② : 동십자각 → 안국동사거리 → 조계사 앞 → 종로1가사거리 → 종로2가사거리 → 낙원상가 → 안국역 4번 출구

4. 행진 퍼포먼스

1) 1차 ‘청와대 포위’ 행진

-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물패가 대열 선두에서 행진
- 청와대 100미터 앞 세 방면에서 ‘청와대 포위’ 공동행동 (동 시간대에 구호, 합성, 나팔, 소리 나는 온갖 도구들 등)

2) 2차 ‘헌법재판소 2월 탄핵 촉구’ 행진

-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 두 방면에서 ‘2월 탄핵 촉구’ 공동행동
- 풍선 수백 개에 ‘2월 탄핵’, ‘박근혜 구속’ 등을 담은 플래카드를 달아 날리기 퍼포먼스

(4) 대보름 부대 행사

- 전국 지역에서 대보름 행사와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음.
- 서울 광화문 광장은 본집회 소등퍼포먼스 대보름달에 퇴진 소원 빌기, 물러나쇼 부제 “달하 노피곰 도다샤”, 행진 마무리 때 대동놀이

2) 사전대회와 지역촛불 개최 현황

(1) 사전대회

- 2월 8일(수) 18시 현재. 계속 추가 중

○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현재는 탄핵하라!’ 탄핵 촉구 시민 대회

-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교차로(안국역 4번 출구)
- 주관 : 박근혜정권퇴진 서울행동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프로그램 : 집회 1시간(발언, 공연, 대형 퍼포먼스) - 행진 40분 - 광화문 본집회 결합
- 문의 : 박무웅 010-9904-2318

○ 여수의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 오후 3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무대
- 주최 : 이주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이주노조, 외노협, 민주노총
- 문의 : 박진우 010-7173-9860

○ 박근혜 즉각 탄핵! 정의당 정당 연설회

- 오후 5시~6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 정의당

○ 새로운 세상, 길을 건져!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 만드는 ‘1박2일’ 대행진(상세 내용은 아래 별첨 참고)

- 오후 4시~4시40분, 광화문광장 북단무대
- 문의 : 김수익 010-9792-4788(기아차 비정규직) 고동민 010-5602-6632(쌍용차 해고노동자)

[별첨]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 만드는 ‘1박2일’ 대행진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 만드는 ‘1박2일’ 대행진

1. 취지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은 또 다시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바치고 온갖 불법으로 수 천 배의 이권을 챙겨온 재벌들이 처벌받기 원했던 천만 촛불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재벌들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공간에 쌓았습니다. 재벌의 돈이 쌓일수록 노동자 서민은 고통받고 가난해졌습니다. 재벌총수를 처벌하라는 사회적 분노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재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경유착과 재벌체제를 끝내야만 노동자 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정몽구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의 구속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 재벌들의 불법과 착취와 탄압의 최대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와 노조파괴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재벌총수를 구속 처벌하고, 임시 국회에서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투쟁에 나섭시다.
-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투쟁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처벌하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탄압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대행진에 함께 나섭시다.

2. 주최 :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

금속노조(갑을오토텍지회, 기륭전자분회,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쌍용차지부, 콜트콜텍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현대차울산-아산-전주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세종호텔노조, 알바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 전해투,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노동당, 노건투,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대학생 광장을 열다 OPENER,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광화문 캠퍼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근혜정권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 박근혜 퇴진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박근혜 퇴진 민주평등국가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부천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손잡고, 시민나팔부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권운동사랑방, 즐거운교육상상

3. 일시 : 2월10일(금) 15:00~2월11일(토) 21:00

4. 장소 : 특검, 법원 → 국회 → 광화문광장 → 청와대

5. 계획

가. “재벌의 추억-노동자연쇄살인극”

(1) 취지

- 황유미, 한광호, 최종범, 염호석, 윤주형, 박정식, 배재형, 양우권… 소비자로 재벌에 대접받았지만 노동자로 재벌에 죽임당한 사람들, 죽음으로 재벌에 항거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 특검에게 이재용, 정몽구를 비롯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재벌총수 구속 촉구
- 재벌에게 죽임당한, 재벌에게 항거했던 노동자들의 신발을 올려놓고 진행한다.
- 특검에서 삼성을 거쳐 법원으로 ‘신나는 행진’을 진행, 삼성의 죄를 묻는 퍼포먼스와 항의행동을 진행한다.

(2) 일시.장소 : 2월10일(금) 15:00 특검 앞

(3) 집회 프로그램

- 15:30~16:30
- ‘1박2일’ 대행진의 취지
-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 재벌들의 범죄 목록 발표(민변)
- 황상기 아버지님, 국석호의 편지 낭독
- 노동자 당사자들 작업복 입고 구속영장 청구서 전달식(구속영장 대형 피켓)
: 삼성, 현대기아, 유성, SK, LG, 롯데

(4) 행진 (특검-삼성)

- 범죄인 호송버스를 꾸며 박근혜, 이재용, 정몽구 등을 끌고 법원으로 행진
- 조선시대 죄인 호송마차 퍼포먼스

(5) 삼성 앞 집회

- 17:30~18:20, 집회 및 저녁식사(사발면, 주먹밥)
- 백혈병에 걸린 황유미에게는 “삼성에 500만원밖에 없다”고 했던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는 500억원을 갖다 바친 삼성의 죄를 묻는다는 의미로 500원짜리 사발면을 먹고, 빈 그릇으로 500억 상징물을 만든다.
- 항의행동 후 법원까지 행진

나. “사법살인, 법이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는 촛불문화제

(1) 취지

-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재벌에게는 면죄부, 노동자들에게는 사법살인을 해왔다.
-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벌인 사법살인의 사례를 모아 폭로하는 토크쇼 형식의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노동자 사법살인 사건’ 내용과 판사를 알린다.

(2) 일시.장소 : 2월10일(금) 19:00- 20:30 법원삼거리

(3) 진행

- 변호사와 노동자가 함께 사회를 보고, 사건의 당사자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야기마당 중간 노래 공연
- 정리해고 정당 판결(콜트콜텍, 쌍용차)
- 정규직 지위 부정 판결(KTX승무원)
-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전교조)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미뤄진 판결(유성기업)
- 현대차 비정규직(손배가압류) / 동양시멘트 조합원 대량 구속/ 하이디스 모욕죄

다. 강남에서 비박 체험!

- 비정규직 농성단과 함께 하루 비박 체험
- 2월10일(금) 20:30-22:00 법원삼거리(뒤풀이)

라. 국회 앞 기자회견 - “잠자는 국회를 청소하자”

- 2월11일(토) 12시:00~13시
- 기자회견 및 상징의식(광화문미술행동, 서예가 집단 대나무 깃발)
- 국회 300석 중 야3당 의석이 170석을 돌파한 국회는 박근혜 탄핵 이후 단 한 건의 개혁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
- 현재 국회의 힘만으로도 노동개약, 사드, 국정교과서, 테러법 등 재벌을 위한 박근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데, 재벌의 눈치를 보며 어떤 개혁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 거꾸로 노동시간 단축도 휴일 연장근로를 인정해 도리어 노동시간을 늘리고 월급을 깎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 촛불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법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10대 노동관련법 처리를 촉구한다.

마.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새로운 세상의 길을 걷자

- 2월11일(토) 13:00-16:00
- 국회 앞 → 마포대교 → 광화문(촛불집회)
- 행진 시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광화문 도착 : 퇴진행동 사전대회(본무대)
- 본대회 이후 청와대 행진

※ 후원계좌 국민은행 654902-01-251581 라두식

※ 문의 김수억 010-9792-4788(기아차 비정규직) 고동민 010-5602-6632(쌍용차 해고노동자)

(2) 지역축발 개최 현황

2월 2주차 전국 축발 현황

- 2월 9일(목) 0시 기준. 총 70여개. 주말 및 평일. 지역 퇴진행동 조직 통해 취합. 일부 시군지역 미취합

◆ 서울

2월 11일(토) 오후 6시, 광화문 광장

◆ 부산

2월 11일(토) 오후 6시, 서면 중앙로

◆ 대구

2월 11일(토) 오후 5시, 대구백화점 앞

◆ 인천

2월 16일(목) 오후 7시, 부평역 앞

◆ 광주

2월 11일(토) 오후 6시, 금남로

◆ 대전

2월 11일(토) 오후 5시, 둔산동 타임월드

◆ 울산

2월 11일(토) 오후 5시, 삼산 롯데백화점 앞

◆ 세종

2월 11일(토) 오후 6시, 도담동 싱싱장터 광장

◆ 경기

◆ 강원

춘천 : 2월 11일(토) 오후 6시, 김진태 사무실 앞

원주 : 2월 11일(토) 오후 6시, 원주의료원 사거리

강릉 : 2월 11일(토) 오후 5시, 대학로

동해 : 2월 10일(금) 오후 7시, 천곡동 우리은행 앞

◆ 충북

청주 : 2월 11일(토) 오후 5시,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옆 도로
제천 : 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제천시민회관
충주 : 2월 10일(금) 오후 7시, 연수동 육회공원
음성 : 2월 16일(목) 오후 7시, 음성읍사무소
진천 : 2월 10일(금) 오후 7시, 진천읍사무소
괴산 : 2월 8일(수) 오후 7시, 괴산군민회관
옥천 : 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영동 : 2월 9일(목) 오후 6시, 영동 삼일공원

◆ 충남

충남시국대회 : 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천안 야우리 앞 택시승강장
예산 : 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분수광장
홍성 : 2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복개주차장
논산 : 2월 10일(금) 오후 7시, 공설운동장 정문
공주 : 2월 11일(토) 오후 5시, 신관동 우리은행 앞
서천 : 2월 11일(토) 오후 6시 30분, 봄의 마을
서산 : 2월 11일(토) 오후 7시, 호수공원

◆ 전북

전주 : 2월 11일(토) 오후 5시, 관동로
순창 : 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농협군지부 앞
군산 : 2월 11일(토) 오후 5시, 롯데마트 맞은편
장수 : 2월 10일(금) 오후 6시, 장수읍 로터리
정읍 : 2월 11일(토) 오후 5시, 시내 가파 앞
남원 : 2월 9일(목) 오후 6시, 남문사거리
김제 : 2월 11일(토) 오후 6시, 터미널 사거리

◆ 전남

여수 : 2월 11일(토) 오후 6시, 흥국체육관 앞
순천 : 2월 11일(토) 오후 6시, 국민은행 앞
광양 : 2월 11일(토) 오후 5시, 중마동 23호 광장
나주 : 2월 11일(토) 오후 6시, 대호동 수변공원
고흥 : 2월 11일(토) 오후 6시 30분, 과역면 팔영농협 앞
담양 : 2월 11일(토) 오후 6시, 대전면 문화회관 광장

영광 : 2월 11일(토) 오후 6시, 전매청 사거리
보성 : 2월 11일(토) 오후 6시, 보성역
함평 : 2월 11일(토) 오후 6시, 광주은행 앞
구례 : 2월 11일(토) 오후 5시, 경찰서 로터리
해남 : 2월 11일(토) 오후 6시, 군민광장
무안 : 2월 11일(토) 오후 6시, 불무공원
목포 : 2월 11일(토) 오후 6시, 평화광장
진도 : 2월 9일(목) 오후 6시, 철마광장
곡성 : 2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군청사거리

◆ 경북

포항 : 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북포항우체국 건너편
구미 : 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구미역
영천 : 2월 11일(토) 오후 6시, 영천시장 앞 소공원
안동 : 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안동 문화의 거리
의성 : 2월 11일(토) 오후 7시 30분, 안계농협 앞
울진 : 2월 11일(토) 오후 6시 30분, 울진군청
경주 : 2월 10일(금) 오후 6시, 경주역 (토크콘서트)
김천 : 매일 오후 7시 30분, 김천역 (사드반대 촛불)
성주 : 매일 오후 7시 30분, 성주군청 (사드반대 촛불)

◆ 경남

경남 시국대회 : 2월 11일(토) 오후 6시, 창원시청광장
진주 : 2월 11일(토) 오후 5시, 차없는 거리
김해 : 2월 11일(토) 오후 6시, 김해 시민의중 건너편 광장
양산 : 2월 11일(토) 오후 5시, 이마트
거제 : 2월 11일(토) 오후 6시, 고현현대차 사거리
통영 : 2월 11일(토) 오후 5시, 통영 강구안
사천 : 2월 10일(금) 오후 5시, 사천읍 탐마트 앞
거창 : 2월 11일(토) 오후 5시, 민주광장
함안 : 2월 10일(금) 오후 6시, 가야읍 사거리

◆ 제주

제주 : 2월 11일(토) 오후 6시, 제주시청
서귀포 : 2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1호광장

(3) 2.18일(토)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안내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2월 18일 2017명의 시민들과 함께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을 개최합니다. 김제동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시민대토론은 박근혜 정권이 짓밟아 온 이 땅의 시민들이 가진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정신과 상을 그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아진 의견은 3월 중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촛불권리선언’ 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시민대토론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개혁의 방향과 정신을, 2부는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토론합니다. 3부는 토론 과정에서 느낀 점을 나누고 참가자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월 18일 모아진 의견은 이 날 참가자 중 추천된 ‘성안위원회’ 50인이 가다듬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퇴진행동과 국민토크 사이트 (bisang2016.net, citizen2017.net)을 통해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행사 진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또 2월 4일에 이어 2월 11일도 광화문 광장(세종대왕상 근처)에서 참가신청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 개요

제 목 :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일 시 :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1시 (3시간 소요 예상)

장 소 : 장충체육관

목 적 : 촛불권리선언 초안 만들기

대 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17명 선착순)

신청기간 :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 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순 서 : 1부) 촛불권리선언 전문에 대한 토론

2부) 촛불권리선언 본문 11개 분야별 전문에 대한 토론

3부) 소감 나눔과 마무리

신 청 : <http://bit.ly/0218시민대토론> (퇴진행동 bisang2016.net, 또는 국민토크 citizen2017.net 홈페이지)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담당 시민참여특위 이승훈 팀장 010-3093-1386)

※ 11개 토론 분야

1. 재벌체제 개혁
2.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3.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4.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

5. 공안통치 기구 개혁
6. 선거/정치제도 개혁
7.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8. 위험사회 청산
9. 교육 불평등 개혁
10. 표현의 자유와 언론개혁
11. 그 외 부문



2017. 2. 18. 토 13:00~16:00
장소 장충체육관 (동대입구역 5번 출구)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
참가신청 ▶ bit.ly/0218시민대토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천만의 촛불이 이루어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광장!
 이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세요~!
 2017명의 시민분들을 초대합니다.



사회 김제등 이미지 © 세상올바꾸는사람 15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후원계좌 :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bisang2016.net | citizen2017.net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bisang2016](https://t.me/bisang2016)